

해외 주요기관의 기후금융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HSBC와 WBG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전략개발부 황현정 선임연구원

I. 기후금융 개관

III. 요약 및 시사점

II. 해외 주요기관의 기후금융 추진 현황

1. HSBC

2. World Bank Group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발전과 각국 정부의 이행의무 구체화로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세계 기후금융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금융의 자원 마련을 위한 그린본드 발행, 기후금융에 특화된 그린뱅크 설립 등이 확대되고 있다. 기후금융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정부·준정부기관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도 In-house형 기후금융을 추진하는 등 기후금융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기관으로는 대형 상업은행인 HSBC와 국제기구인 World Bank Group(WBG)이 있다. 양 기관 모두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후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관의 특성상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HSBC는 기존 취급중인 금융업무와 연계하여 그린본드 발행, M&A, 주식 및 채권 발행, PF 및 수출 금융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기후금융을 접목시키고 있다. 반면, WBG은 개발도상국 또는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양허성 자금 대출, 금융 및 기술 자문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기관과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업무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기후금융 업무 추진 시 기관 전체의 미션 수립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 조직 및 실제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기후금융 개관

1. 기후금융의 정의

- 기후금융에 대한 명확히 정립된 정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기후 변화 해결을 목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¹⁾
-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여 저탄소·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금융활동으로 금융상품·역량강화·연구개발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
- 기후금융은 지속가능금융 및 녹색금융보다 범위가 다소 좁은 개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강조할 경우 ‘녹색기후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표 1〉 기후금융 유사개념 정리

| 구분 | 정의 또는 개념 |
|---------------------------------|---|
|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수익 이외에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와 관련된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환경금융, 녹색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
| 녹색금융 (Green Fi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 환경금융이 물리적 환경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녹색금융은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기후금융 (Climate Fi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여 저탄소·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금융활동을 의미 • 금융상품·역량강화·연구개발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포함 |
| 환경금융 (Environmental Fi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경영이 대두되면서 논의되기 시작 • 공기,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 |
| 탄소금융 (Carbon Fi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발생을 줄이는 사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 연계된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녹색금융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자료 : 조승헌(2013), 노희진·김규림(2012), 진익·김윤희(2016) 등을 참고하여 정리

1) KPMG삼정회계법인(2013), p.7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²⁾에서는 기후금융을 “공공, 민간 및 대안적 자금원으로부터 조성된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금융으로 주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

2. 기후금융의 발달 배경

□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발전 및 이행 과정과 관련되어 있음

- 기후변화 및 재원조성 관련 논의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UNFCCC가 채택된 이후 매년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³⁾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UNFCCC는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8~2012년 간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2005년 2월 발효됨
-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각국 정부가 합의된 자발적 공약⁴⁾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함에 따라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신기후체제에서는 2020년부터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

2)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 발효됨

3)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4) 자발적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

<참고>

파리기후변화협약(Post 2020)

(협약 주요내용)

-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며, 2016년 11월 발효됨
 -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Post 2020)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
-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 형식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각 국가, 민간부문 및 개발금융기관들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해야 함

(우리나라 가입현황)

-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비준서를 기탁하여 97번째 비준국이 됨
-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목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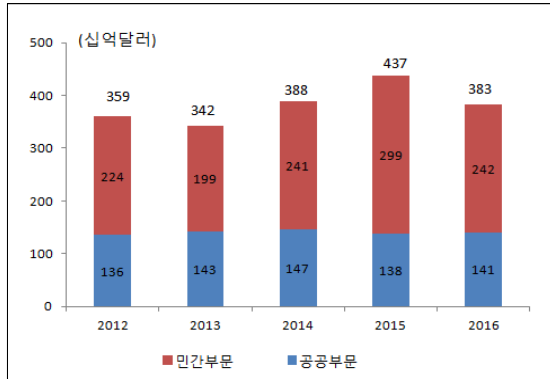
3. 세계 기후금융 시장 동향

□ 세계 기후금융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 규모에 따라 증감

○ Climate Policy Initiative(2017)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금융 규모는 2015년 4,370억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6년 3,830억달러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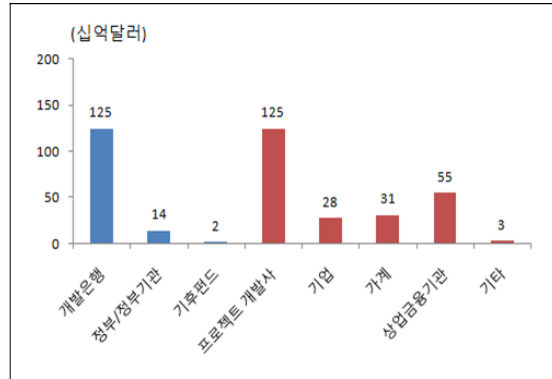
- 2015년의 규모 증가는 주로 중국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미국과 일본의 옥상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투자확대에 기인
- 2016년에는 기술비용 하락 및 중국에서의 추가 설비투자 감소로 기후금융 규모가 다소 감소
 - 태양광발전 전기비용은 2010년 365달러/MWh에서 2016년 120달러/MWh, 풍력발전 전기비용은 동기간 120달러/MWh에서 65달러/MWh로 하락
- 2012년 이후 공공부문의 기후금융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1,360~1,470억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규모에 따라 증감

〈그림 1〉 글로벌 기후금융 규모 추이



자료 : CPI(2017)

〈그림 2〉 자금원천별 기후금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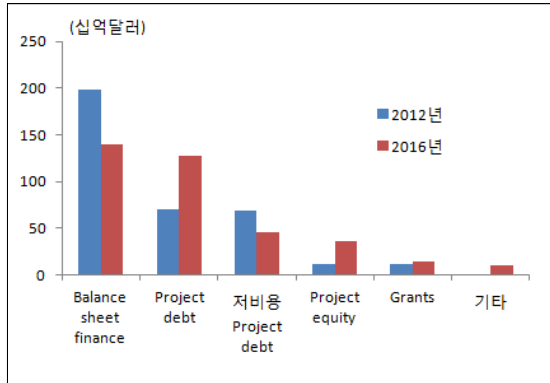


주 : 2016년 기준, 개발은행은 정부개발은행(560억 달러), 다자개발은행(480억달러), 양자개발은행(210억달러) 포함

자료 : CPI(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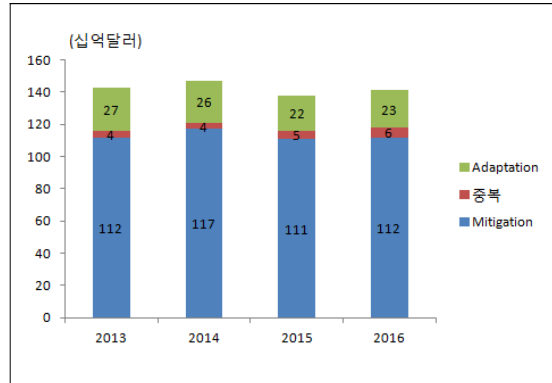
- 금융수단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하여 기업 및 프로젝트 개발사가 주식 및 채권 발행(Balance sheet finance)을 통해 조달한 규모가 1,400억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기반한 Project debt(1,270억달러), 기후기금 및 개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저비용 또는 양허성 자금 대출(450억달러)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Project debt와 Project equity 상품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투자 분야별로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기후변화 적응(Adaption) 분야 중 주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지원이 집중
 - 2016년 기준 전체 공공부분 기후금융 1,410억달러 중 1,120억달러(79.4%)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투자됨
 -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투자금액 중 자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2016년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서유럽, 북미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3〉 금융수단별 기후금융 규모



자료 : CPI(2017)

〈그림 4〉 투자분야별 기후금융 규모



주 : 공공 기후금융 기준

자료 : CPI(2017)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원마련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후금융 분야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

- 기후 및 환경 분야 재원마련을 위한 그린본드 발행, 기후금융에 특화된 그린뱅크 설립 등이 확대
 - 2017년 전 세계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1,555억달러로 2016년 대비 78% 증가⁵⁾
 - 정부 및 준정부기관 주도의 그린본드 발행 증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증가, 그린본드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10년 전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그린뱅크 설립이 본격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13개의 그린뱅크가 설립·운영 중
- 기후금융 규모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필요규모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나, 기후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큼
 -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15년 파리협약 이행을 위하여 향후 15년 동안 약 13.5조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⁶⁾
 - 자발적 공약(NDC) 이행계획 구체화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기존 공공금융의 녹색금융화, 기후관련 금융리스크 공개 및 보고를 위한 산업 전반의 논의 확대, 혁신적인 혼합금융 상품 사용 증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5) Climate Bonds Initiative(2018)

6) IEA(2015)

- 국제기구 및 정부·준정부기관이 기후금융 분야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도 In-house형 기후금융을 추진하는 등 기후금융을 강화하는 추세임
- II장에서는 기후금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대형 상업은행 HSBC와 국제기구 World Bank Group(WBG)의 기후금융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II. 해외 주요기관의 기후금융 추진 현황

1. HSBC

(1) 기관 개요 및 현황

□ HSBC는 1865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67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종합금융회사

- 1865년 홍콩에서 아시아와 서양의 무역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설립
 - 1991년 HSBC 지주회사 설립 후 1992년 영국 Midland 은행을 인수하며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
 - 1950년대부터 M&A를 활용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인 확장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로 2011년 5월 이후 사업구조조정 진행
- ‘글로벌 네트워크 개발’, ‘규모가 큰 시장에서 자산관리 및 개인 금융서비스에 투자’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중
- 2016년 말 The Banker지 기본자본 기준 세계 9위, 영국 1위 은행이며, 고객 수 38백만명, 지점 수 67개국 3,900여개, 직원 수 229,000명⁷⁾의 대형은행

□ HSBC의 사업구조는 4개의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과 지원 부문인 Corporate Center로 구성

- RBWM(소매금융 및 자산관리), CMB(기업고객 대상), GB&M(투자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대부분의 수익(94.3%)을 거양 중

7) HSBC Annual Reports and Accounts(2017)

-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력 사업분야로 아시아지역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및 기술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 중
- 중국 신용카드업 진출(2016년 12월), 역외 위안화채권 시장 참여 등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진출 강화

〈표 2〉 HSBC 사업구조 현황 및 수익 비중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업무 | 수익규모 (비중) |
|--|---|-------------------|
| RBWM (Retail Banking & Wealth Management) | • 개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 20,287 (39.4) |
| CMB (Commercial Banking) | • 기업고객 대상 무역금융 등 대내외 금융서비스 제공 | 13,223 (25.6) |
| GB&M (Global Banking & Markets) | • 정부, 대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 금융서비스 제공 | 15,091 (29.3) |
| GPB (Global Private Banking) | •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1,703 (3.3) |
| Corporate Center | • 2016년 설립, 자금 및 비용 관리 등 지원 기능, 영국 내 비즈니스 등 | 1,220 (2.4) |
| 총계 | | 51,524 (100.0) |

주 : 수익 규모 및 비중은 2017년 말, Adjusted Revenue 기준
 자료 : HSBC Annual Reports and Accounts(2017)

(2) 기후금융 추진 배경

□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기후금융보다 넓은 개념인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

○ 2003년 ‘적도원칙’⁸⁾ 서명에 초기멤버로 참여한 이후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발전 및 혁신을 추진

8) 천만달러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6월 10개 대형 금융기관의 서명으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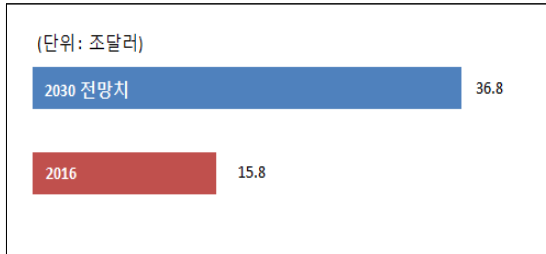
- 2007년 HSBC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HSBC Climate Change Center of Excellence’ 설립
 - 기후변화가 경제·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기후정책, 2°C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 대하여 연구·분석

□ 2015년 파리협정 채택에 맞추어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저탄소경제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그룹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장기 트렌드 변화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고려
 -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 낮추기 위해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 규모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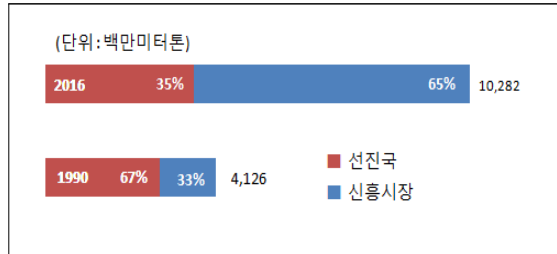
〈그림 5〉 HSBC 전략 수립을 위한 장기 트렌드 변화

① 글로벌 무역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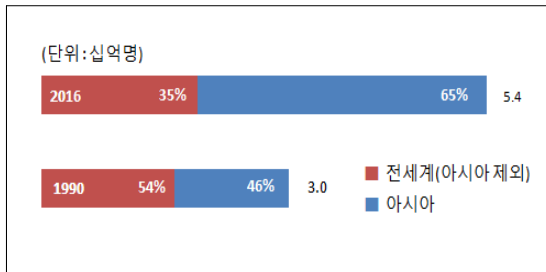
주 : 글로벌 제품 수출규모
 자료 :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

② 신흥시장 규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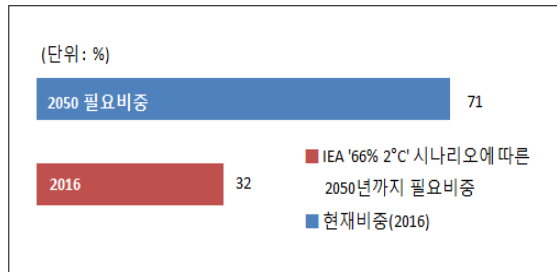
주 : 선적규모(unloaded 무게) 기준
 자료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③ 중산층 규모 증가



주 : 중산층 인구수
 자료 :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Middle Class(2017)

④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



주 : G20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비중, 21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 낮출 확률이 66%라고 가정
 자료 : OECD,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2017)

전체 자료 : HSBC Annual Reports and Accounts(2017)

(3) 기후금융 추진전략

□ HSBC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⁹⁾와 파리협약 등 국제적인 합의에 맞추어 구체적인 5개의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설정

- 2017년 11월 ① 2025년까지 천억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금융 및 투자 실행, ②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 ③ 발전용 석탄에 대한 익스포저 감소, ④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¹⁰⁾의 권고사항 채택, ⑤ 지속가능금융·투자 관련 논의 주도 등의 목표를 발표

〈표 3〉 HSBC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 목표 | 주요 내용 |
|------------------------------------|--|
| ① 2025년까지 천억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금융 및 투자 실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약 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기여하는 친환경에너지, 저탄소 기술, 프로젝트 개발에 천억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비즈니스 관련 고객 대상 주식·채권상품 개발 • 기업 및 기관고객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위험관리 지원 • 기관고객, 소매금융 및 PB고객에게 지속가능한 투자상품 투자 독려 |
| ②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충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또는 전력수급계약을 통한 매입의 방식으로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 • ‘RE100’^{주)}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 • 운영 효율성 제고로 2020년까지 전력소비량 20% 감축 |
| ③ 발전용 석탄에 대한 익스포저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 탄광 및 발전용 석탄에 의존하는 신규 고객에 대한 지원 중단 • 선진국 소재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 고탄소분야 고객들의 전략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 |
| ④ TCFD의 권고사항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 비즈니스에 걸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개 • 보다 세부적인 기후 매트릭스 및 시나리오 분석 제공 예정 • 위험 측정을 위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협력 |
| ⑤ 지속가능금융·투자 관련 논의 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금융부문의 역할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Center of Sustainable Finance’ 설립 • 지속가능 이슈 및 영향에 대한 분석력 제고 |

주 :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 친환경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받겠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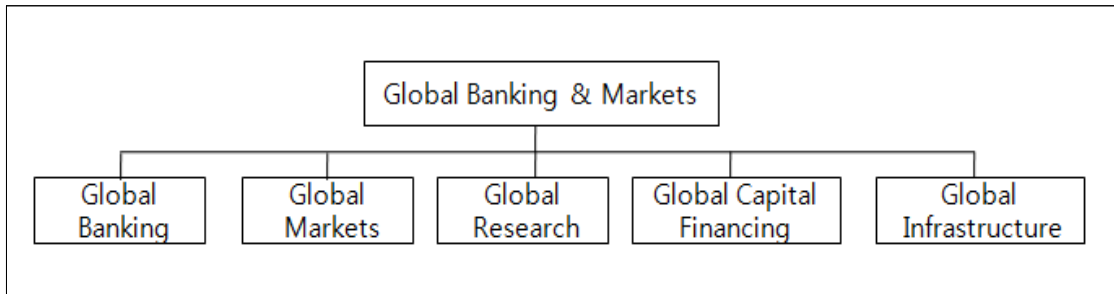
자료 : HSBC ESG Supplement(2017)

9) UN에서 발표한 경제·환경·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17가지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2016년~2030년까지 함께 이행해야 하는 목표임

10)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의장으로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재무보고서의 주요 항목으로 투자처의 기후변화 대비 정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글로벌 기준을 논의, G20에 제안서 제출

- HSBC의 기후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 업무는 상위 레벨의 위원회를 통해 전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GB&M(투자금융서비스) 부문 내에 지원업무 조직과 연구 조직이 별도로 존재
 - 2010년 설립된 Climate Business Council(CBC)은 각 부문을 대표하는 고위급 간부 및 전문가로 구성, 그룹 전체적으로 지속가능금융 업무를 조정하고 고객의 지속가능금융 수요에 맞추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 수행
 - GB&M(투자금융서비스) 부문 내에 2016년 지속가능금융에 집중하는 팀 단위의 ‘Sustainable Finance Unit(SFU)’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에는 ‘Center of Sustainable Finance’를 설립
 - SFU는 CBC에 보고하며, 상품 혁신, 전략 수립 및 전달, 기존 영업부문과 협업, RM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 기존 영업라인에서 상품의 개발 및 운영, 고객 영업을 하고, SFU는 상품개발팀과 글로벌마켓 담당의 지속가능금융 자원 마련을 지원
 - 녹색기후기금(GCF) 자금 관련 업무, 정부, 연구소 및 산업계와의 네트워킹 역할도 수행
 - ‘Center of Sustainable Finance’는 기후변화 및 금융부문의 역할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위하여 설립
 - GB&M 부문 Global Research 내에 기후변화 및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리서치센터인 ‘HSBC Climate Center of Excellence’가 있음

〈그림 6〉 HSBC GB&M 부문 조직도



자료 : HSBC Global Business Programme Structure

(4) 주요 기후금융 추진사례

□ 2015년 12월 HSBC 프랑스 법인에서 처음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민간기관 중 최초로 지속가능개발채권(SDG Bond)을 발행

- 2015년 발행된 5억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는 유로화표시 선순위 무담보채권으로 발행되었으며,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ICERO)로부터 최고 등급인 ‘Dark Green’ 등급 획득¹¹⁾
-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토지 사용, 친환경 건물 및 교통, 기후변화 적응 등의 분야에서 9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에만 투자 가능
 - 2017년 6월말 기준 재생에너지(410백만유로, 82%),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52백만유로, 10%), 에너지 효율성(38백만유로, 8%) 분야에 자금 공급
 - 지역별로는 터키, 남아공,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등지의 에너지효율성 증대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PF 및 대출의 형태로 지원

〈표 4〉 HSBC 프랑스의 그린본드 발행 개요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발행통화 | 유로(EUR) | 총발행금액 | 5억유로 |
| 발행일 | 2015.12.3 | 만기일 | 2020.12.3 |
| 발행가격 | 99.428% | 신용등급 | ‘AA-’(S&P), ‘A2’(Moody’s), ‘AA-’(Fitch) |
| 이자율 | 고정금리, 연0.625% | 이자지급 주기 | 연간 |
| 투자가능 분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친환경 빌딩 및 교통,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토지 사용, 기후변화 적응 | 투자금지 분야 | 핵발전, 무기, 알코올, 도박, 성인엔터테인먼트 |

자료 : HSBC Green Bond Framework(2015)

11) CICERO는 채권조달액의 사용 제한 및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계열의 독립연구 기관으로, ‘Dark Green’은 동 프로젝트가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임을 의미

- 2017년 12월에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맞춘 10억달러 규모, 2023년 만기 HSBC SDG Bond 발행
- SDG Bond는 그린본드와 투자프로젝트의 선택·평가·운영의 측면에서는 방법 및 절차가 동일하나, 그린본드보다 자금사용처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특징이 있음(표 5 참고)
 - 구체적으로 ① 교육 및 헬스케어, 수질관리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③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교통시스템 구축, ④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예정

〈표 5〉 HSBC Green Bond Framework vs. HSBC SDG Bond Framework

| 구성 | HSBC Green Bond | HSBC SDG Bond |
|----------|--|---|
| 자금 사용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효율적 빌딩,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청정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웰빙, 질 높은 교육, 청정 수자원 및 위생, 청정에너지, 산업·혁신·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기후 활동 |
| 선택·평가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팀이 그린본드 발행대금 사용을 위한 잠재적인 녹색대출처를 확인 • Green Bond Committee가 신규 및 기존 자금 사용이 HSBC Green Bond Framework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 Group Sustainability가 적합성을 마지막으로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팀이 SDG 본드 발행대금 사용을 위한 잠재적인 SDG 관련 대출처를 확인 • Green Bond Committee가 신규 및 기존 자금 사용이 HSBC SDG Bond Framework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 Group Sustainability가 적합성을 마지막으로 결정 |
| 운영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BC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Green Bond Committee가 자금 사용을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BC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Green Bond Committee가 자금 사용을 점검 |
|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단위로 Green Progress Report 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단위로 SDG Progress Report 발간 |
| 외부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CER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lytics |
| 외부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w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lytics |

자료 : HSBC SDG Framework(2017)

□ 그린본드 발행 이외에도 전반적인 금융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폭 넓은 기후·환경 사업을 수행

- 다수의 타 기관 그린본드 발행에 공동간사단(Joint Lead Manager)으로 참여
 - 캐나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등 주정부, NAB(National Australia Bank), 프랑스 CDC 등 정부은행뿐만 아니라 Iberdrola(스페인 국영 전기회사), Enel(이탈리아 최대 국영 전기회사) 등의 그린본드 발행에 공동간사단으로 참여
- 그린본드 발행 주선 이외에 에너지 또는 인프라 기업을 대상으로 M&A, IPO 및 채권 발행, PF 및 수출금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M&A) 사우디 산업그룹 Abdul Latif Jameel의 Fotowatio Renewable Ventures 인수, Enel Green Power의 인도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Bharat Light & Power 지분 인수 등에 단독으로 인수자문
 - (주식 및 채권발행 지원) 스페인 신재생에너지기업 Saeta Yield의 IPO, 중국 Singyes Solar Technologies의 전환사채 발행 등에 투자자모집(Joint Book runner) 역할 수행
 - (PF) Enel Green Power의 남아공 태양광패널 설치 사업, 덴마크의 스리랑카 낙농업 향상 프로젝트 등에 자금 지원
- 2007년 적도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매년 적도원칙이 적용된 PF 거래규모를 보고하고 있으며, 동 거래규모는 2016년 25억달러, 2017년 24억달러 규모임
 - 모든 PF 대출에 대하여 외부 독립적인 전문가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

〈표 6〉 적도원칙 하에 완료된 PF 거래규모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2016 | | 2017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PF 대출 | 16 | 1,506 | 10 | 844 |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 7 | 939 | 7 | 1,566 |
| 프로젝트 관련 브릿지론 | 1 | 60 | 0 | 0 |
| (소계) | 24 | 2,505 | 17 | 2,410 |
| PF 자문서비스 | 3 | n/a | 3 | n/a |
| (총계) | 27 | 2,505 | 20 | 2,410 |

자료 : HSBC ESG Update(2018)

2. World Bank Group(WBG)

(1) 기관 개요 및 현황

□ WBG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에 근거해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5개 기관으로 구성

○ 빈곤해소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금융 및 기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

- 저금리 대출 및 채권, 양허성 자금 제공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 건강, 공공, 인프라, 금융 및 민간부문 발전, 농업·환경·천연자원 관리 분야에 투자
- 주요 의사결정을 189개 회원국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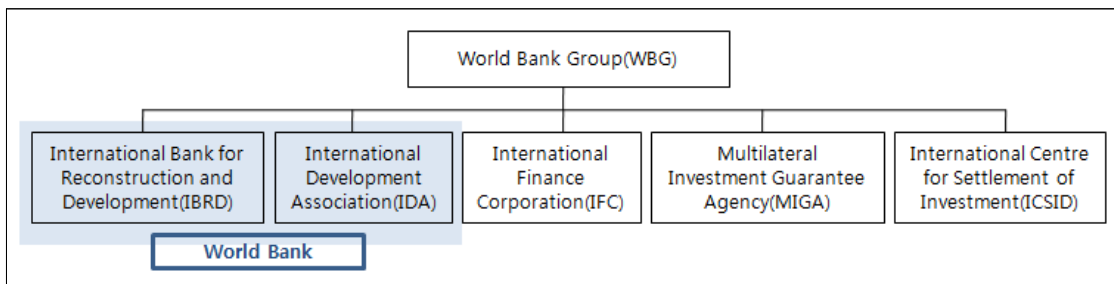
○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종식’, ‘경제변영 공유’라는 두 개의 미션을 설정

- 2030년까지 하루에 1.90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의 비중을 3% 아래로 감소시키고, 개별 국가 하위 40% 빈곤층의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한 3대 중요 분야로 ① 지속가능·포용적인 경제성장 촉진, ② 인적자본 투자, ③ 글로벌 충격 및 위협에 대한 회복력 제고를 선정

○ 2017년 기준 총 618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회원국 및 민간부문에 대출, 양허성 자금, 주식, 투자, 보증의 형태로 지원했으며, 전 세계 120개 이상 사무소에서 11만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림 7〉

World Bank Group 구성



주 : IBRD와 IDA를 World Bank라 지칭

자료 : World Bank Group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

(2) 기후금융 추진 배경

□ 기후변화가 WBG의 두 가지 미션(극심한 빈곤 종식 및 경제번영 공유) 달성에 큰 위협요인인 것으로 판단

- 극심한 빈곤 해소 및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회복력 강화, 적응설비 증가 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1억명의 인구가 추가로 빈곤상태가 된다고 전망¹²⁾
- 기후변화의 인류 건강에 대한 영향은 이미 측정 가능하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탄소배출과 관련한 오염물질은 매년 7백만건 이상의 조기사망과 관련이 있으며,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2030년까지 매년 20~40억달러에 이를 전망
- 특히 WBG의 지원대상국인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

□ 개도국 등의 기후변화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바, WBG과 같은 국제기구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은 수조 달러에 달할 전망
 - New Climate Economy(2014)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개발도상국 및 중소득 국가 중심으로 새로운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90조달러에 달함
 - IEA(2017)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하로 줄이기 위한 에너지 분야 투자 자금은 2050년까지 매년 3.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기후활동 증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기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혁신을 일으키고 녹색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판단
 - IFC(2016)는 21개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공약(NDC) 이행에 따른 투자기회의 규모를 23조달러로 추정

12) WBG(2015)

- 2015년 미국에서는 태양에너지 분야 일자리수가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일자리수를 넘어섰으며, 중국에서는 친환경에너지 분야 종사자수가 석유 및 가스 분야 종사자수보다 35% 많은 것으로 나타남¹³⁾

(3) 기후금융 추진전략

□ WBG은 2020년까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제고, 저탄소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빈곤해소 및 경제적 번영 공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

○ 그룹 포트폴리오 중 기후금융의 비중을 2016년 21%에서 2020년 28%까지 확대코자 하며, 지원 규모로는 연간 290억달러에 달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WBG 자체 자금 및 민간 자금 뿐만 아니라 양허성 자금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2016년에는 기후금융 목표 달성을 위한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수립, 4개 분야의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설정 (표7 참고)

- 5년간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파리협약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공약(NDC)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세부 우선순위로 ① 각국의 기후정책 지원, ② 민간자본 유인, ③ 기후금융 규모 확대, ④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협력 증진을 선정

○ 2017년에는 UN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자선기관, 다자은행들을 모으는 새로운 플랫폼인 ‘Invest4 Climate’을 구축

13) Bloomberg(May 25, 2016)

〈표 7〉 'WBG Climate Change Action Plan'의 우선순위 및 세부 목표

| 우선순위 | 목표 |
|----------------------|--|
| ① 각국의 기후정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가장 빈곤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 및 기후 어젠다를 통합하는 정책 전환을 지원 |
| ② 민간자본 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성 기후자금 활용을 통하여 회원국의 기후회복 및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지원 • IFC는 기후분야에 대한 자체 투자규모를 5년 내 23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매년 130억달러의 민간분야 투자자금을 유지할 계획 |
| ③ 기후금융 규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관련 활동을 증대 • WBG이 수행하는 활동의 28% 이상이 기후분야에 동반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Action Plan에서 제안된 75% 이상의 계획에 대하여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
| ④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협력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히 각국의 자발적 공약(NDC) 이행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수행하고, 세계 기후관련 논의에 기여 • 모든 프로젝트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및 탄소배출 관련 사회적 비용을 평가 • IFC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후 및 탄소리스크를 측정 예정 |

자료 : WBG(2016),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2020"

□ World Bank(WB)의 조직 중 Global Themes¹⁴⁾의 기후변화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 단위에서도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WB) Global Themes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Global Practices 부서에도 기후금융 관련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 Global Themes의 기후변화 담당부서에서 모든 WBG 업무단위와 협력하여 고객 대상 기후업무, 그룹 전체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그룹 전체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

- 기후변화 관련 지표 개발, IDA의 기후업무 조정 및 모니터링 역할과 CIFs, IFC-Canada Climate Change Program, Forest Funds, Carbon Funds 등의 기후기금을 주관하는 역할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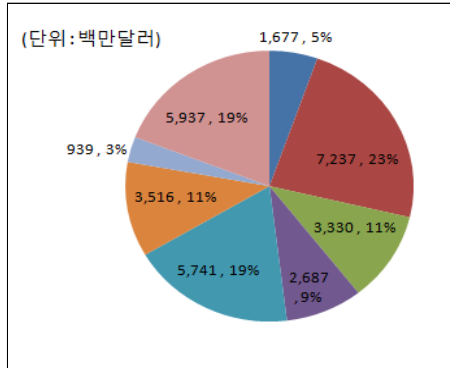
14) World Bank의 조직은 General Management Units, Regional Units, Global Practices, Global Themes로 나뉘어져 있으며, Global Themes는 5개 분야(① Climate Change, ②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③ Gender, ④ Infrastructur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⑤ Knowledge Management)로 구분됨

- 대부분의 Global Practice 부서에도 기후변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집중하는 팀이 부서 내에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IFC) 각 산업부서 및 지역, 자문, 운영 조직의 기후담당으로 구성된 Climate Business Network가 조직되어 있으며, WB의 Global Themes 소속인 Climate Business Department에서 네트워크 운영, 전략 개발, 중점 지원 업무 등을 담당

(4) 기후금융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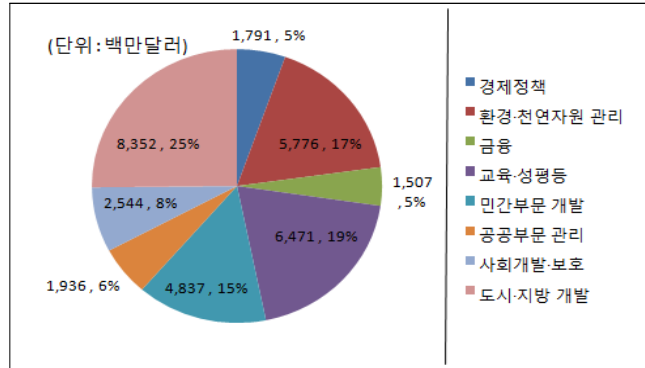
- 2011~2016년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및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관련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630억달러를 지원
 - 연간 평균 103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WBG 전체 지원 규모의 21%를 차지
 - 73%가 온실가스 감축, 27%가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지원됨
 - 기후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이외에도 프로젝트 디자인 등 정책 및 기술 자문 역할도 수행
 - 2016년에는 177개 기후관련 프로젝트에 104억달러가 지원
 - 2017년 분야별 대출실적으로 살펴보면 IBRD의 경우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분야’에 72억달러(23%), IDA의 경우 58억달러(17.4%)가 지원됨
 - 기후금융 수행을 위한 그린본드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World Bank와 IFC는 세계 최대 그린본드 발행기관 중 하나
 - 2017년 4월 기준 World Bank는 130건, 100억달러, IFC는 77건, 58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

〈그림 8〉 IBRD의 분야별 대출규모 및 비중



자료 : WBG Annual Report(2017)

〈그림 9〉 IDA의 분야별 대출규모 및 비중



자료 : WBG Annual Report(2017)

□ 주요 프로그램 사례

- (Scaling Solar Program) 2015년 사하라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잠비아,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포함)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태양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반면 인구의 1/3 이상이 전기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 각국 정부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규모 및 위치선정을 지원하고 개발자에게 경쟁력있게 경매할 수 있도록 지원
 - WB(IBRD, IDA) 보증, MIGA의 투자 보증, IFC의 금융지원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도모
 - 2017년 2월에는 잠비아의 산업개발공사(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가 500MW 규모의 청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IFC와 협정에 서명
- (China Energy Efficiency Financing Program) 2006년 중국지역 중간 및 대규모 산업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이를 통한 기후에 대한 악영향 감소를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 IBRD 자금이 Participating Financial Intermediary(PFI)를 통해 에너지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에너지 서비스회사에 대출금 형식으로 지원
 - 1차 프로젝트 비용 571백만달러 중 200백만달러, 2차 프로젝트 비용 151.6백만달러 중 100백만달러, 3차 429백만달러 중 100백만달러가 지원됨

Ⅲ. 요약 및 시사점

□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발전과 각국 정부의 이행의무 구체화로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각국 정부는 합의된 자발적 공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 중
- 세계 기후금융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금융 재원마련을 위한 그린본드 발행, 기후금융에 특화된 그린뱅크 설립 등이 확대
- 국제기구 및 정부·준 정부기관들이 기후금융 분야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금융기관들도 In-house형 기후금융을 추진하는 등 기후금융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기후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기관으로는 대형 상업은행인 HSBC와 국제기구인 WBG이 있으며, 양 기관 모두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후금융을 추진 중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 HSBC는 기후금융보다 다소 넓은 개념인 지속가능금융의 관점에서 동분야 업무를 추진 중이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리서치를 중점적으로 수행
- WBG은 극심한 빈곤 종식 및 경제번영 공유라는 그룹의 미션 달성에 기후변화가 큰 위협요인 것으로 판단, 2020년까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제고, 저탄소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빈곤해소 및 경제적 번영 공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양 기관 모두 기후금융을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 중점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기관의 특성상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HSBC는 상업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기존 취급하고 있는 금융업무와 연계하여 그린본드 발행, M&A, 주식 및 채권 발행, PF 및 수출 금융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기후금융 업무를 접목시키고 있는 특성이 있음
 - WBG의 경우 개발도상국 또는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양허성 자금 대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국가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에 금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국내에서도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과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업무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기후금융 업무 추진시 HSBC, WBG와 같이 기관 전체의 미션 또는 전략 수립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 조직 및 실제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후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저수익·고위험으로 여겨지는 기후 관련 프로젝트의 특성상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어려워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기후금융 기반조성이 필요

참고문헌

[국문자료]

노희진·김규림(2012),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조승현(2013), “기후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진익·김윤희(2016), “공공 기후금융 정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KPMG 삼정회계법인(2013), “기후금융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제시”

[영문자료]

Bloomberg(May 25, 2016), “Clean-Energy Jobs Surpass Oil Drilling for First Time in U.S.”
Climate Policy Initiative(2017),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7”
Climate Bonds Initiative(2018), “Green Bonds Highlights 2017”
HSBC(2015), “HSBC Green Bond Framework”
_____(2017),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Supplement”
_____(2017), “HSBC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 Framework”
_____(2018), “HSBC Annual Reports and Accounts 2017”
_____(2018), “HSBC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Update”
IEA(2015),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Briefing for COP21”
_____(2017), “Perspective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Needs for a Low-Carbon Energy System”
IFC(2016), “Clim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New Climate Economy(2014), “Better Growth, Better Climate”
WHO, <http://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66/en> (검색일: 2018.4.2)
World Bank Group(2015), “Shock Waves: Manag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Poverty - Background Papers”
_____(2016),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2020”
_____(2018), “Annual Report 2017”